

데스크시각

박치경



너무나 닮았다. 마치 시계바늘을 꼭 20년 전으로 되돌려 놓은 형국이다. 오는 4월 9일 제 18대 총선을 앞둔 현재의 정치 지형이 그렇다는 말이다.

20년 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스무해 전의 13대 총선은 6·10 국민항거로 얻어낸 대통령 직선제에 따라 1987년 13대 대선에서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당선된 후 1988년 4월 26일 실시됐다. 13대 총선은 1972년 10월 유신의 '안전관'으로 1973년 제9대 총선부터 등장했던 중선거구제가 15년 만에 사라지고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치러졌다.

되돌아간 정치 시계

13대 총선 결과는 '황색 돌풍'으로 집약된다. 당시 평화민주당은 광주·전남·북을 석권하고 수도권에서 약진, 70석을 차지해

일약 제 1야당으로 도약했다. 여당 민정당은 125석, 부산·경남 기반의 통일민주당 59석, 대전·충남의 신민주공화당이 35석을 차지함으로써 지역구도가 형성됐다.

1980년대 초 신군부에 의해 정치생명과

20년 전의 답습? 선택 방향은

이 잘릴 뻔했던 김대중(DJ) 평민당 총재는 13대 총선으로 기사화됐다. 이후 DJ는 이를 발판으로 15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13대 총선을 기점으로 광주·전남 유권자 성향도 고착화됐다는 점이다. 이전까지는 중선거구제 탓에 지역민들이 비토(?)했던 당파도 지역구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13대 이후부터는 DJ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일반 지지 구도로 바뀌었다.

이 같은 투표성향은 지역출신 정치인이 아니라라도 DJ와 정치적 이념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됐다. 경남 김해 출신의 노무현 후보(민주당)가 출마했던 2002년 16대 대선에서 노 후보에게 광주 유권자는 95%, 전남은 93%라는 기록적인 지지를 보였다.

가장 최근인 2004년 17대 총선도 마찬가지로 유권자 갈라선 특수한 상황에서 치러졌지만 두 정당이 한 뿌리에서 출발했

던 만큼 양측의 지지율을 합산한 수치(광주 90%, 전남 85%)는 13대 총선 이후 확고해진 지역 유권자 투표 성향의 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오는 4월 9일 총선을 앞둔 현재의 정치구도 또한 공고하게 20년 전과 흡사하다. 20년이 흐른 지금 절대적 지지를 보냈던 노무현 대통령이 쓸쓸하게 퇴장,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이 겪는 정치적 상실감과 고립감은 크게 다를 바 없다.

총선구도 역시 20년 전을 방불케 한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 세력과 '친박연대'로 양분돼 13대 총선 당시 민정당과 민주당을 연상시킨다. 대전·충남에서는 이회창 씨를 중심으로 한 자유선진당이 기세를 올리고 광주·전남은 통합민주당이 주류여서 13대 총선 당시 광민·민정·민주·신민주공화당 체제를 본뜬 '신 4당' 구도로 재편되려는 움직임마저 보인다.

이젠 '유권자 돌풍'을

이번 총선에서 통합민주당은 광주·전남에서 안정적인 득표와 함께 전 후보들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지역 일부에선 '거물급' 무소속이 우세한 것으로 나왔지만 정치적 '분가'가 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총선 역시 13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26일 4·9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된다. 이 때부터 지역 유권자들이 한 번 짚어 볼 일이 있다. 20년 전을 그대로 답습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쓸모있는 일꾼에게 표를 몰아주는 '유권자 돌풍'을 일으킬 것인지들...

/체육·여론매체부장 unipark@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김신희



지휘자 로린 마젤.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다소 곤혹스럽다. 그는 1930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다. 그에게는 유대인의 혈통과 러시아, 헝가리의 피가 고루 섞여있다. 그리고 그는 어렸을 적 미국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성장했다. 하지만 젊은 날 주로 활동한 곳은 이탈리아였으며, 나중에는 독일이었다.

그는 이른바 천재였다. 여덟 살에 최초로 오케스트라를 공개 지휘하여 슈베르트 '미완성 교향곡'을 연주했으며, 지휘계의 전설인 토스카니니가 이끌던 NBC 교향악단을 열한 살에 지휘했다. 그는 대부분의 메이저 오케스트

물이 시작되자 객석은 다소 술렁이기 시작하고, 관객들은 음악 속으로 점점 빠져든다. 아름답고도 비장한 아리랑 선율은 공연장을 휘감고, 사람들은 눈시울이 붉어온다. 아아, 박수를 치고 싶지만 음악이 끝나지 않는다. 끝날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변주되며 슬픔과 희망이 교차하는 선율의 솟아오름 속에서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한다. 음악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닌, 바로 가슴으로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뉴욕 필하모닉의 평양 방문 공연은 정치계나 음악계에게 역사적인 사건임에 분명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처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지휘자 바렌

음악, 화해와 소통의 새로운 방식

리에서 지휘를 맡았던 가장 어린 지휘자로 기록되었고, 현재도 최고의 지휘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다.

올해 78세인 그가 지난 2월 26일 북한으로 날아갔다. 미국 오케스트라의 최초 북한 공연을 하기 위해서이다. 이 역사적인 공연은 우리나라에도 실황 생중계로 방영되었다. 공연장은 다소 경직된 표정의 사람들로 가득했다. 카메라가 스쳐 지나가는 그들의 표정에는 수많은 생각이 담겨있는 듯 했다. 그토록 오랜 세월 완강하게 외쳐왔던 타도의 나라에서 온 음악가들, 그리고 그들이 연주할 음악을 기다리는 그 순간은 아마도 그 공연이 이루어지기만큼 힘든 순간이 아니었을까.

노 지휘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흔들기 시작한다. 그의 팔이 허공을 가르자 오케스트라는 일제히 익숙한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한다. 슬프고도 아름다운 선

율이 시작되자 객석은 다소 술렁이기 시작하고, 관객들은 음악 속으로 점점 빠져든다. 아름답고도 비장한 아리랑 선율은 공연장을 휘감고, 사람들은 눈시울이 붉어온다. 아아, 박수를 치고 싶지만 음악이 끝나지 않는다. 끝날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변주되며 슬픔과 희망이 교차하는 선율의 솟아오름 속에서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한다. 음악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닌, 바로 가슴으로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뉴욕 필하모닉의 평양 방문 공연은 정치계나 음악계에게 역사적인 사건임에 분명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처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지휘자 바렌

하지만, 월드컵 예선 남북경기가 두 나라간 국가 연주 문제로 인하여 상하이에서 열리게 된다는 소식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직은 화해와 소통의 방법이 마련되지 않았단 말인가. 아니면 마젤과 같은 위대한 지휘자가 없어서만 말인가. 뉴욕 필이 평양에서 연주한 아리랑의 선율이 한없는 이별의 노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음악칼럼리스트·2005년 11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하천오염 주범 비점오염원 차단에 만전을

앞으로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공장을 지을 때도 빗물로 인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비점(非點) 오염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점오염이란 정해진 장소에서 유발되는 오염이 아닌 도시, 도로, 농지, 공사장 등과 같은 불특정 장소에서 유발되는 오염을 말한다. 이는 빗물이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릴수록 더욱 많은 쓰레기와 세균이 강이나 하천으로 유입돼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4대 유역의 전체 오염 부하량의 22~3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쯤에는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가뭄이 계속돼 갑자기 비가 올 경우 강이나 하천의 물고기가 폐죽음을 당한다는 보도를 종종 접하게 된다. 물론 비가 내리는 틈을 타 공장에서 버린 폐수 때문에 물고기 폐사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이 비점오염원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점 오염물질을 관리하지 않고서는 수질 개선을 이루기 힘들다.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비점오염원 차단에 신경써야 한다. 다가오는 장마에 대비해 환경당국도 더 적극적으로 빗물로 인한 주변지역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김재형·광주시 북구 북동

기고

박일상



그동안 무안군은 1차산업 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와 인구 감소, 노령화 등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최근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청 이전에 따라 남양신도시가 조성됐고 무안국제공항이 개항돼 항공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또 약 35km의 광활한 면적에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를 건설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라남도(郡)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등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무안시 승격을 염원하는 군민들은 최근 민간차원에서 시(市)승격 추

해 동의할 수 없다. 인구수가 도시의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하나 인구수만으로 광역화의 잣대를 삼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 아닌까 싶다. 이웃 일본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자치단체 기준 6만5천명의 인구를 가진 무안군이 결코 작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또 한가지 최근 한 언론보도를 보면 과거 광역시로 편입된 인천광역시 강화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일선자치단체들이 예전지역으로 환원하자는 복군(復郡)운동이 확산

무안시 승격이 우선이다

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갖고 시 승격을 위한 군민의견 수렴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무안군도 이에 발맞추어 무안시 승격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무안시 승격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타시 기여해야 할 것은 바로 음악이 소통과 화해의 위대한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다. 예술은 정치와 국가,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 만인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위대한 공통의 언어인 것이다.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은 한결같이 지역발전은 없고 혈우시설을 유지하는 결과만 가져왔고, 그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 상실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만큼 통합을 해서 는 실익이 없다는 것이고 통합이 민병 통치약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치단체간 통합은 지역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지역 자치단체는 물론, 의회, 지역주민 등의 의견이 합의 되어야만 한다.

이제는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소모적인 통합논의는 중단하고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모색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아가 통합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통합논의가 가능하겠다는 제반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무안시 승격 추진위원회 사무국장>

학교 급식, 최저가보다 안전이 먼저다

초·중·고교의 교내 급식 김치류 납품업체 선정 결과가 상식 밖이라고 한다.

납품업체 선정방식이 가장 낮은 가격 제시 업체에 낙찰하는 최저가중액입찰제이다. 하지만 전자입찰 참여업체의 실수로 잘못된 가격의 최저가를 인정해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학생들 급식안전을 생각지 않은 무책임한 처사다. 예정가에 크게 못미치는 가격으로 는 질 좋은 식재료와 급식안전에 기대하기 어렵다. 당장 문제의 낙찰업체가 낙찰 후 학교에 제시한 산출 내역을 봐도 알 수 있다. 낙찰가에 맞추기 위해 2천원 하는 매추 한포기 가격을 몇 백원에 산정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값싼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나왔다 해서 학부모들의 신경이 예민한 상황이다. 이런 때 비유문제를 유료 값싸고 저급한 김치를 학생들에게 제

공하려 하니 부모들로서는 자녀의 안전과 건강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최저가 낙찰로 손해가 불가피한 업체가 자선단체가 아닌 이상 어떻게든 손해를 보전하려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입게 된다.

학교측도 마찬가지다. 납품업체가 관행화된 허점을 이용 계약품목 이외의 품목을 납품하면서 시중가를 받는다며 손해보전 이상의 이윤을 챙기면 학교도 그만큼 지출이 늘 수밖에 없다.

때문에 검수강화와 함께 구매방법을 바꿔야 한다.

품질을 우선시 해야할 식품을 '비용'을 이유로 최저가 낙찰제로 구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학생들의 식품안전에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최재수·광주시 북구 동림동

시설

공식 출범한 여수엑스포 조직위 기대 크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여수엑스포 조직위는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뜻을 올린다. 조직위원장은 장소우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명예 조직위원장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각각 맡게 된다. 조직위의 출범으로 여수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 작업이 본격화된 것이다.

여수엑스포 개최까지는 겨우 4년밖에 남지 않았다. 올림픽, 월드컵 등 일반 국제 행사의 준비기간이 7~10년 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짧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위는 지금까지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해 성공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직위는 엑스포 종합계획과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또 박람회 직접 관련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참가국 및 세계박람회기구(BIE)와 협력 체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여수엑스포의 성공 여부가 조직위의 활동

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직위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한 것이다.

대회준비기간이 짧은 만큼 조직위는 전시관 등 엑스포 직접 시설과 도로, 철도, 공항 등 기반시설 확보부터 서둘러야 한다. 이들 시설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돼 당장 시작해도 완공까지는 버겁다. 조직위가 완벽한 준비를 해 시행착오를 하지 않아야 기한 내에 완공할 수 있다.

조직위는 엑스포 개최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 엑스포 폐막 후 시설과 부지 등 각종 인프라가 국가 및 지역경제에 활상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이 용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수엑스포는 10조원의 생산유발과 4조원의 부가가치는 물론 9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조직위의 공식출범이 여수엑스포 성공개최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여수엑스포 개최까지는 겨우 4년밖에 남지 않았다. 올림픽, 월드컵 등 일반 국제 행사의 준비기간이 7~10년 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짧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위는 지금까지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해 성공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직위는 엑스포 종합계획과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또 박람회 직접 관련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참가국 및 세계박람회기구(BIE)와 협력 체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여수엑스포의 성공 여부가 조직위의 활동

불·탈법 선거운동 유권자가 뿌리 뽑아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를 마감된다.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이 총선 열기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

이번 총선은 역대 선거와 대비된다. 예전에는 여야가 정책과 공약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이번엔 정책대결은 없고 계파간 갈등과 싸움 등 공천 후유증으로 혼역을 치르고 있다. 여야 모두 후보 등록일이 임박해서야 공천자를 확정할 곳이 적지 않다.

광주·전남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통합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당의 결정에 반발, 속속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간 뜨거운 경쟁이 예상된다. 선거운동 기간이 짧은 만큼 공표할 수 있는 당파도 여 불·탈법 행위가 관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강원도에선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김택기 후보가 등록일을 눈앞에 두고 금

품살포 혐의가 선관위에 적발돼 후보직을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선거구민들에게 4천100만원의 돌리려 한 혐의다. 선거전이 치열할수록 불·탈법 선거는 기승을 부릴 것이다.

선거가 불법과 혼탁으로 얼룩져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얼마 전 경북 청도군수 재선거에선 후보로부터 금품을 받은 주민 수백명이 선거사범으로 무더기 적발돼 법원까지 가게 됐다. 지난 17대 총선에선 국회의원 당선자 11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처분을 받았다.

검찰과 경찰, 선관위가 불·탈법선거를 근절키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검찰은 돈 안 들이는 선거, 거짓말 없는 선거, 미디어 황포 없는 선거를 다짐했다. 선관위는 국민들에게 불법행위를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새로운 선거 문화를 창출하려면 사정 당국과 선관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유권자들의 의식부터 달라져야 할 것이다.

無等鼓

지난 22일은 물의 날이었다. 이 날을 전후해 환경단체 등이 주최한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다. 소중한 자원인 물이 걸핏하면 오염에 노출되고, 물 쓰듯 평평 쓰는 탓에 부족현상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려는 취지에서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4대 강의 수질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얼마 전 인 낙동강에 중금속인 페놀이 유입돼 그 일대 식수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영산강의 수질 또는 좋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전남도에서는 새 정부의 윤하 정책을 기회를 삼아 하도 정비 등을 통한 영산강의 대대적

장 두드러진 물 부족 국가가 됐다. 우리나라도 물을 함부로 사용하든 때 따른 대 표적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상황이다.

이런 물 부족 현상은 물에 대한 투자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국발 신용경색은 상황에서 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려는 취지에서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4대 강의 수질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얼마 전 인 낙동강에 중금속인 페놀이 유입돼 그 일대 식수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영산강의 수질 또는 좋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전남도에서는 새 정부의 윤하 정책을 기회를 삼아 하도 정비 등을 통한 영산강의 대대적

물, 물같이



그런데 최근 총선 정국을 맞아 '물같이'라는 말이 부쩍 많이 쓰인다. 썩은 물을 깨끗한 물로 바꾼다는 의미의 물같이에 빗대 의정활동 부진 현역의 원이나 구시대 인물 교체 폭을 놓고 개혁 공천이니 개혁 실력니 인 정화를 계획하고 있기도 하다.

기후변화, 인구증가 등에 따른 세계적 물 부족 현상 또한 간과할 수준을 넘어섰다. 물 부족은 이미 스페인 남부, 인도 남부, 중국 북부, 멕시코, 호주 동부 등 수많은 지역에서 현실화했다. 특히 인구면에서 세계 5분 1을 차지하는 데도 보유한 물의 양이 7%에 불과한 중국은 가

말들이 많다. 불합리한 여론조사 경선에 참신한 인물이 공천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유권자들은 공천 지연으로 후보 검증 기회마저 박탈당했다.

이제 새로운 물같은 유권자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유권자들의 '한 방'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자.

/김우성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대표전화 2200-551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경명지원국
<대표 FAX>	222-4918	<F A X>	222-0118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 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경명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F A X>		222-8005	<F A X>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F A X>		227-9500	<F A X>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F A X>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